

## 경찰통역 오류 양상 연구 -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홍서연\*\*

### I. 서론

2000년대 들어 외국인 근로자 수용, 결혼 이민자 증가로 인해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인권 및 처우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원숙, 2012). 실제로 법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2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여 현재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4.89%에 이른다<sup>1)</sup>.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476).

\*\* 단국대학교 유럽중남미학부 러시아학전공 초빙교수

1) 해당 통계자료는 법무부 출입국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검색 2024.7. 11)

것임을 고려하면, 다양한 기관에서 외국어 사용자를 대면할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정확한 통역의 중요성은 수사 및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뿐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 개인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의 소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통번역 학계에서는 2005년부터 사법통역<sup>2)</sup>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지속적인 연구의 방향은 사법통역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진아, 2008;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이지은, 2012a; 2017a; 이지은, 장원경, 2016; 정혜연, 2009)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통역 사례 및 통역인의 역할인식을 분석한 연구(이유진, 2015; 2016; 2021; 이지은, 2012a; 2012b; 이지은, 홍서연, 2020; 홍서연, 2019a; 2019b; Lee & Hong, 2021)도 이루어졌는데, 사법통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수사 및 사법기관의 특성상 통역상황을 관찰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통역실험 연구(이지은, 2017b; 이지은, 장원경, 2015)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사법통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증제가 도입된 지방법원의 통역평가와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이지은, 2021; 정철자 외, 2019)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회의통역과 비교하면 지역사회통역 관련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김혜림, 2013; 한현희, 2016)이지만, 그중에서도 사법통역을 다루는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정희란, 한혜민, 송은정, 2023)에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경찰통역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통역 상황을 관찰하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찰통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경찰청,

2) 사법통역(legal interpreting)은 출입국과 관련된 준사법적인 인터뷰를 포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소송단계까지 통역을 총망라하는 것이고(이지은, 2012a, 29), 그 하위 범주로 수사기관,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이 포함된다.

2020, 11)의 관점에서 실제 러시아어 경찰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통역실험을 통해 경찰통역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역의 정확성은 사회언어학적 수용성 등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태형, 2001, 9)에 동의하면서도, 오류분석을 통해 곧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찰통역인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선행연구

### 1. 통역의 오류

통번역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오류이다.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오류 유형을 적용하여 통역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통역의 애로사항, 특징을 고찰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오류의 유형을 제시한 연구 가운데 동시통역에 나타나는 오류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Barik(1971)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오류 유형을 크게 누락, 대체, 추가로 구분하였다. 해당 오류유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해당 오류 유형을 동시통역에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미경(2012)은 Barik의 유형에 따라 오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동시통역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통역사가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통역사의 사용 가능한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으로 누락이 가장 많았고, 의미상의 오류와 표현의 변이가 발생한 대체 유형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ST에 없던 정보를 통역사가 새로이 추가하거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가한 경우인 추가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태형(2001)은 영한 동시통역 담화에 기반하여 오류 유형 중 생략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동시통역 녹화 및 녹음자료에 포함된

영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장 간 및 문장 내 휴지가 짧은 경우와 원문의 속도와 발화율이 높은 문장의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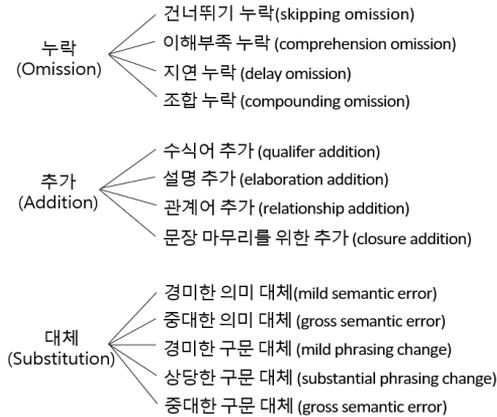
특히 의료통역 분야에서 Barik의 오류유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Flores et al. (2003; 2012)는 Barik의 오류 유형 세 가지 외에도, 비유창성(false fluency)과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편집(editorialization)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소아 진료에 한정하여 통역 오류를 분석(Flores et al., 2003)한 결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은 누락 > 비유창성 > 대체 > 편집 > 추가 순으로 나타났다. 오류의 대부분이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였고, 전문 교육을 받은 통역인의 오류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의 통역을 분석한 연구(Flores et al., 2012)에서도 누락 > 비유창성 > 추가 > 대체 > 편집 순이었고, 전문 통역교육을 받은 통역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통역인보다 잠재적 결과의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크게 줄었다. 20명의 의료통역사를 대상으로 가상의 통역 시나리오에 따라 통역을 분석한 연구(Anazawa, Ishikawa, & Kiuchi, 2012)에서는 누락 > 비유창성 > 대체 > 추가 > 편집 순으로 나타났다. 비유창성 오류는 의학용어를 잘못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전문용어 숙지를 통해 그리고 추가의 경우 윤리 교육을 통해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Barik의 유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 유형을 추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추가 유형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관찰된다.

## 2. Barik의 오류 유형

Barik이 제안한 오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ik은 동시통역 자료에 기반하여 오류의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크게는 누락(omission), 추가(addition), 대체(substitution)로 오류를 구분<sup>3)</sup>

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하위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 1〉 오류 유형(Barik, 1971)

동시통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유형은 누락인데, 이는 네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건너뛰기 누락(skipping omission)’은 전치사, 접속사를 포함하여 단어나 짧은 어절을 누락하는 경우로 의미손실이 적다. ‘이해부족 누락(comprehension omission)’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원문의 일부가 통역되지 않은 경우로, 동시통역 중단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의미손실은 크다. ‘지연 누락(delay omission)’은 통역사가 통역하는 동안 동시에 이루어진 화자의 발화가 통역에서 누락되는 경우이고, ‘조합 누락(compound omission)’은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루어진 발화를 종합하여 통역하는 경우이다. 이해부족누락, 지연 누락, 조합 누락은 동시통역의 특징에 기인한 오류 유형이다.

추가(addition)는 형용사, 부사를 추가하는 수식어 추가(qualifier addition),

3) Barik이 제시한 오류유형 중에서 omission은 ‘누락’으로 번역하였는데, 통역인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통역되지 않은 오류의 유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본문에서 omission은 이러한 오류의 관점에서 다를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한국어 번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도착어 문화를 고려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설명 추가(elaboration addition),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추가하는 관계어 추가(relationship addition), 원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문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closure addition)가 있다. 이러한 추가 유형은 내용상 의미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substitution)는 의미상의 변화 정도에 따라 경미한 의미 대체(mild semantic error), 중대한 의미 대체(gross semantic error)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표현상 어색하고 부정확한 통역이지만 의미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경우이고, 후자는 특정 어휘를 잘못 이해하거나(diplomacy/democracy),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혼동하는 경우이다. 구문 대체와 관련해서는 원문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내용의 핵심은 유지되는 경우는 경미한 구문 대체(mild phrasing change), 구문 대체로 인해 의미상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핵심은 왜곡되지 않은 경우인 상당한 구문 대체(substantial phrasing change), 의미상의 큰 변화를 초래한 중대한 구문 대체(gross semantic error)로 구분된다.

### III. 오류 유형 및 분석 자료

#### 1. 경찰통역 분석을 위한 오류 유형

국내 지방법원에서 ‘사법통역 평가 척도’를 마련하고 ‘정확성’, ‘목표언어’, ‘전달력’ 기준으로 통역을 평가한 바 있다. 사법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인 ‘정확성’ 평가를 위한 하위 항목은 ‘누락’, ‘왜곡’, ‘추가’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요소가 원문의 의미와 정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통역을 평가하였다(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9). 본 연구에서는 사법통역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기준으로 경찰통역을 평가하기 위해 Barik의 오류유형을 적용하였다. Barik이 제시한 ‘누락’, ‘대체’<sup>4)</sup>, ‘추가’로 구성된 오류유형을 사법통역의 정확성 평가 기준인 ‘누락’, ‘왜곡’, ‘추가’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

문이다. 다만, Barik의 오류 유형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오류 유형 중 ‘누락’은 ‘건너뛰기 누락’, ‘이해부족 누락’, ‘지연 누락’, ‘조합 누락’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건너뛰기 누락을 제외하면 모두 동시통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오류이므로 순차통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찰통역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단순화했다. 대체와 추가 유형 역시 ‘무엇’을 추가하고 ‘어느 정도 중대한’ 의미 대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구분한 Barik의 하위 구분을 단순화하여, 단어와 긴 어절 혹은 문장 중에서 무엇을 추가하고 대체했는지에 따라 구분했다. 앞서 의료통역 연구의 오류유형에 포함된 비유창성과 편집오류는 오류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각 대체와 추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가 발생한 곳에 통역의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 오류가 발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누락, 추가, 대체가 발생한 어휘 및 문장에서 발생한 오류의 원인에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표 1>과 같이 경찰통역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표 1> 경찰통역 오류 분석 틀

오류 유형		내 용
누락	단어 누락	단어나 짧은 어절이 누락된 경우
	문장 누락	긴 어절이나 문장이 누락된 경우
추가	단어 추가	단어나 짧은 어절을 추가하는 경우
	문장 추가	긴 어절이나 완전한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 (도착어의 문화를 고려하여 추가 설명하는 경우 포함)
대체	단어 대체	단어나 짧은 어절을 대체하는 경우 (고유명사 등을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포함)
	문장 대체	긴 어절이나 문장을 의미상 다른 구문으로 대체한 경우

4) Barik의 대체는 사법통역 평가 척도의 ‘왜곡’과 대응되는데, 의미상 등가를 이루는 단어로의 대체가 아니라, 의미상 왜곡이 발생한 경우를 오류유형인 대체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 2. 연구 참여자 및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는 서울경찰청이 수사통역관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2024년 5월에 공지하여 모집하였다. 우선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공지하였다. 이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연구대상자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발송하여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모집된 참여자는 러시아어를 모국어 혹은 공용어로 사용하는 화자 10명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 3명으로 총 13명이다. 참여자 모두 여성이고,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참여자 가운데 11명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역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2명의 참여자는 국내 전문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통역사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모국어(공용어)	명수	성별	연령대	경찰통역 횟수
러시아어	10명	여성	30대~50대	연간 약 10회~30회
한국어	3명	여성	30대~40대	연간 약 5회~25회

통역자료는 한국 경찰청(2020)에서 제작한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전문화 교육 - 수사통역 통합교재(러시아어 버전)’에 수록된 경찰과 피의자 간의 대화를 참고하여 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제작했다. 실제 경찰 조사와 유사하게 피의자 권리 고지, 인정신문, 사건 조사로 구성하였고, 법률 및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용어, 고유명사, 숫자 등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 시 주요한 기준이 된다. 통역 텍스트는 총 3개이고,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의 대답 21개의 쌍으로 구성하였다. 폭행 사건에는 피의자 권리고지, 인정신문, 외국인 간의 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금품피해 사기 사건은 금액, 사건 발생 일자 등 숫자와 채무변제 등의 전문용어를 포함하였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를 포함한 고유명사와 발생 시간 등을 포함하였다. 수사 절차상 반복되는 피의자권리 고지, 인정

신문은 폭행 사건에만 포함하였다. 통역자료는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각각 녹음했다. 경찰통역 오류를 고찰하기 위한 실험은 화상회의 포맷인 Zoom 상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실험은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사전에 녹음된 경찰통역 담화를 들려주고, 연구 참여자들이 통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경찰통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문장별 통역 시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통역실험 종료 후에는 화면에 통역 원문을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통역을 상기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원문을 이해했는지 등 자기회상구술(Ivanova, 2000)을 하도록 했다. 결과지향적(product-oriented)인 방법만으로는 통역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통역인이 원문과 자신의 통역을 회상하여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했다. 실험 종료 후 녹음된 자료는 엑셀 파일에 문장 단위로 전사하고, 사전에 마련된 오류분석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 문장에서 오류가 여러 개 발생한 경우 각각의 오류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집계하였다. 통역실험에 활용된 자료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통역 자료

통역 자료	녹음 시간	단어 수	
		한국어	러시아어
폭행 사건	3분 15초	122	139
금품피해 사기 사건	1분 56초	40	120
성추행 사건	3분 10초	103	313
총합계	8분 21초	265	572
		총 837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정량적 분석 결과

경찰통역 오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 유형별 발생 건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찰통역 분석결과 관찰된 오류는 총 418개로, ‘누락’(212건, 50.7%)이 가장 많았고, ‘대체’(187건, 44.7%), ‘추가’(19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오류 분석 결과(이미경, 2012; Anazawa, Ishikawa, & Kiuchi, 2012; Flores et al., 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오류 유형은 누락으로 나타났다.

〈표 4〉 경찰통역 오류 분석 결과

오류 유형		오류 발생 횟수(건)		비율(%)	
누락	어휘 누락	136	212	32.5	50.7
	문장 누락	76		18.2	
추가	어휘 추가	10	19	2.4	4.6
	문장 추가	9		2.2	
대체	어휘 대체	158	187	37.8	44.7
	문장 대체	29		6.9	
합계		418		100	

오류의 하위 범주로 보면 어휘 대체(37.8%), 어휘 누락(32.5%), 문장 누락(18.2%), 문장 대체(6.9%), 어휘 추가(2.4%), 문장 추가(2.2%) 순으로 나타났다. 어휘 대체는 청취 혹은 표현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경찰 맞은편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피의자를 2인칭이 아닌, ‘피의자’ 혹은 이름 등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지칭하는 대상을 혼동하여 통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전문용어의 경우 정확한 대응어를 찾지 못해 자신이 이해한 대로 풀어서 통역하는 경우(стеноз позвоночника(척추 측만증) → 척추 관련 질환 등), 지명 등의 고유명사의 경우 자신이 들은 발음대로 통역(철산동 → Солсандон(솔산동), 쌍문동 → Санмудонг(상무동) 등)하거나 날짜와 금액을 잘못 통역한 경우였다. 어휘 누락과 문장 누락의 경우 피의자권리를 고지하거나 사건발생 경위

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열거된 단어나 행위 등의 일부 혹은 문장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였다. 문장 누락의 경우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맞습니까)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호소하는 경우에 아주 짧은 문장이 누락되는 경우(Что все (그게 다예요), что за ерунда (무슨 헛소리예요) 등)가 있었다. 문장 대체는 원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통역하는 경우인데, 사건 관련 진술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종합하여 통역하는 경우였다. 통역인들이 최대한 원문이 발화된 순서대로 통역하려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어휘 추가, 문장 추가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언어 방향성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언어 방향별 오류 유형

오류 유형		한-러	러-한	합계
누락	어휘 누락	88	48	136
	문장 누락	43	33	76
추가	어휘 추가	3	7	10
	문장 추가	8	1	9
대체	어휘 대체	108	50	158
	문장 대체	17	12	29
합계		267	151	418

한-러 방향에서 발생한 오류는 267건, 러-한 방향에서는 151건으로 한-러 방향에서 훨씬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한-러, 러-한 통역에서 발생빈도에 따른 오류 건수는 어휘대체 > 어휘누락 > 문장누락 > 문장대체 순이었다. 양 언어 방향에서 어휘나 문장의 추가하는 건수는 많지 않았다. 통역인의 모국어와 관계없이 한-러 방향에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도대화에 속하는 경찰담화의 특징에 기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날짜와 시간, 장소와 사건 관련자 등의 정보 및 숫자와 고유명사가 포함된다. 때로는 혐의명 등을 법률용어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용어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질문에 포함된 정보의 밀도가 높다. 이에 반해 피의자(피해자)는 경찰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거나 일상어 수준에서 자신의 상황을 구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언어 방향별 오류발생 건수를 분석할 때 경찰의 원발화 자체에 더 많은 문제유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자 개인별 오류 발생 빈도이다. <표 6>에서 보듯 통역인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K1과 K3의 통역에서 발생한 오류는 각각 18, 13회로 오류 횟수가 매우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오류가 적다는 것이 곧 목표언어 구사나 전달력까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내용 면에서 오역의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6〉 경찰 통역인 개인별 오류 유형

참여자	누락		추가		대체		합계
	어휘	문장	어휘	문장	어휘	문장	
R1	8	4	0	1	13	0	26
R2	15	7	0	1	10	2	35
R3	12	8	0	0	16	6	42
R4	9	1	0	0	8	2	20
R5	17	3	0	2	11	2	35
R6	9	4	3	1	10	0	27
R7	10	6	2	0	6	3	27
R8	10	5	1	0	12	2	30
R9	16	7	1	1	19	4	48
R10	18	11	2	2	17	2	52
K1	5	1	0	1	10	1	18
K2	4	17	1	0	19	4	45
K3	3	2	0	0	7	1	13
합계	136	76	10	9	158	29	418
총 합계	212		19		187		

## 2. 오류유형별 사례

앞서 경찰 통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정량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제시하고, 오류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 제시된 사례에서 원문이 경찰의 발화인 경우는 P, 피의자 혹은 피해자인 경우는 편의상 S로 표기하고, 통역인은 위의 <표 6>에 명시된 참여자 번호로 표시하였다. 러시아어 원문 혹은 통역문 밑에 저자가 번역본을 기재하였다. 오류 발생 부분은 원문과 이에 대응되는 통역문에 밑줄, 누락의 경우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1) 어휘누락

원문과 비교하여 통역결과에서 특정 단어가 누락된 경우를 어휘누락으로 구분하였다. 사건발생 경위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내용의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으로 숫자, 고유명사 순으로 누락되었다. 언어 방향성별로 보자면 특히 한-러 통역 방향에서 누락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대화의 특징에 기인한다. 제도의 운영자인 경찰은 사건 관련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고, 피의자는 그렇지 않은 상황(박용익, 2006)에서 경찰은 법률 용어, 의료용어, 숫자,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정보의 밀도가 높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피의자는 제시된 정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하거나,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비교적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로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P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저녁 11시 30분 철산동 회사 숙소에서 이바노프 씨를 폭행한 사실 있으시죠?
R2	Сей час я задам вопрос конкретно по этому делу. В 2021 году в сентябре месяце ∅ ∅ в рай оне Солсандон был вами избит Иванов?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1년 9월 솔산동에서 이 바노프를 폭행했습니까?)

“한국어와 러시아어 낱짜가 정 반대잖아요. 숫자 저희한테 어려워요. 노트레이킹을 어떻게 하면 좋죠? 월이랑 낱짜 순서를 러시아식으로 적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간까지 나오면 사실 이게 시간인지 낱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 R2

위의 통역 사례는 경찰이 사건발생 낱짜와 시간을 언급하면서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통역에서 구체적인 낱짜와 시간이 누락되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문장에 숫자, 고유명사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때 통역인들은 제대로 노트레이킹을 하기 어렵고, 노트를 했더라도 표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낱짜를 열거하는 순서가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통역인은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노트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고, 이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취, 노트레이킹, 표현 단계에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사례 2]

P	당신이 <u>다짜고짜</u> 머리를 <u>주먹으로</u> 때리고, <u>테이블에</u> 있던 <u>주전자</u> 랑 <u>유리컵</u> 을 던지고 칼로 위협했다고 하던데요.
R3	Вы <u>∅</u> ударили <u>∅</u> его по голове, затем бросили стеклянный стакан <u>∅</u> и угрожали ножом, всё верно? (당신이 그의 머리를 때리고, 유리컵을 던지고 칼로 위협했다는데, 모두 맞나요?)

“경찰통역 할 때, 폭행사건이면 누가 누구를 먼저 때렸고, 그다음 누가 방어를 했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트레이킹 할 때 그림이나 어떤 표시 같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 R3

“다짜고짜는 무슨 말이에요? 막 때렸다는 거죠? 느낌은 있는데 러시아어로 막상 하려니까 표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 R6

위의 사례는 폭행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경찰이 설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는 과정

에서 피의자가 취했던 행위와 그 과정에서 던진 물건을 열거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는 ‘다짜고짜’, ‘주먹으로’, ‘테이블에 있던 주전자’와 같은 어휘가 누락되었다. 누락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문에 포함된 전문용어나 숫자, 고유명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 및 행동 묘사에서도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노트테이킹 기법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다면 실제 통역에 적용하고 활용하여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S	<p>Я хорошо относился к ней , а она наоборот <u>не ценит заботу</u> и говорит, что я ее домогался. Мне очень жаль и обидно. (나는 그녀에게 잘해줬는데, 그녀는 반대로 배려를 모르고 내가 추행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p>
R3	<p>저는 잘 대해줬는데요. 이바노바가 <u>☐</u> 성추행했다고 하니까 억울하고 불쾌해요.</p>

위의 사례는 성추행 피의자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 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위의 사례에서 러시아 표현으로 ‘배려해 준 것을 평가하지 않다’ 혹은 ‘은혜를 모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не ценить заботу)이 누락되었다. 청취단계에서 이해했더라도 적당한 한국어로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로 위의 사례처럼 누락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람 및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노트테이킹 등을 통해 사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2) 문장누락

통역 시 문장이 누락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청취나 재현의 단계에서 문제

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두 과정 사이를 이어주는 노트테이킹 기술이 숙련되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다. 어휘 누락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누락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전문용어가 포함된 문장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었다.

[사례 4]

P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실 건가요?
K2	∅,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адвоката? Вы хотите назначить Вам адвокат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신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기를 원합니까?)

“매번 똑같이 나오는 문장이지만, 외워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K2

“이거는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정확히 잘 안됐네요” - R7

위의 사례는 피의자권리 고지 마지막 부분인데,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이 통역되지 않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즉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통역되었다. 피의자권리 고지문에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법률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상 등가를 이루는 문장으로 바로 통역하기 어렵다. 위의 고지문은 수사 절차상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면 수사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전에 번역하고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묻겠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등 수사 관련 경찰의 진행 발언이나 요청 내용에서 문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5]

S	Как я вам уже сказал, на корпоративе я выпил, поэтому, придя домой, сразу заснул. <u>Я не помню во сколько я пришел домой.</u> (이미 말씀드렸듯, 회식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에 집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R10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식에 갔었고, 회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끝나고 나서 집에 바로 와서 잠들었습니다. <u>∅</u>

경찰통역 분석 시 원 발화에 전문용어, 숫자, 고유명사 등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단어나 문장 단위로 다양한 오류 유형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사항 유발 요소가 없고 위의 [사례 5]와 같이 일상적으로 평이한 문장인 경우에도 문장 누락의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위의 문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바로 잠이 들었던 것이 원인이고 귀가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결과이므로 인과관계 등 논리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트테이킹을 한다면 위와 같은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6]

P	그날 피의자가 유독 술을 먹었고,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맞습니까?
R6	Вы ее заставляли, она сильно опьянела и потеряла память? <u>∅</u> (당신이 그녀에게 강요했고, 그녀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뒤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노트테이킹도 안 되어 있고요”

- R6

경찰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 역시 자신이 했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술 뒤에 ‘그게 전부예요’, ‘(성추행 혐의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등의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장이 생략되는 경우

가 종종 있었다.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노트에 이킹을 하지 않으면 청취단계에서 이해하고 기억하더라도 실제로 통역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3) 어휘대체

어휘 대체는 오류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 통역인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당한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전문용어의 대체가 가장 두드러졌고, 그다음으로는 숫자, 고유명사 순이었다.

#### [사례 7]

P	쿠르바노프 씨에게 금품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R9	Вы же сказали, что хотит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за Курбанова о том, что он <u>обманул вас.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о делу мошенничества.</u> (당신은 쿠르바노프 씨가 당신을 속인 것과 관련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기, 사기 사건으로요.)

“한국어는 단어가 짧는데 러시아어는 길잖아요. 여기서 사기는 러시아어로 мошенничество인데, 이 단어 자체가 길어요. 거기다가 금품이라고 하면 뭔가 돈과 관련된 거 같긴 한데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기라고 통역했어요. 이후 문맥에서 나오겠지 싶어서요” R9

“금품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돈인지 아니면 금으로 만든 물건인지 몰랐어요.”

R7

위의 사례는 금품사기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다. 금품은 돈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인데, 대부분의 통역인들이 금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했더라도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몰라서 단순히 ‘사기’라고 통역하거나, ‘재산 관련 사기’,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훔치다’ 등으로 통역하였다. 법률 및 의료 전문용어의 경우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단어의 핵심어를 기반으로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어 원문에 척추 협착증(стеноз позвоночника)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통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는데, 대부분 ‘척추 질환’, ‘척추가 아파서’ 등 척추라는 핵심어를 기준으로 일반화해서 통역했다.

[사례 8]

P	2022년 12월 24일 쌍문동 백두산 찜질방에서 직장 동료 이바노바를 성추행한 것으로 고소당한 사실 알고 계시죠?
R1	2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в сауне было произведено домогательства по поводу Ивановой ? (2021년 10월 21일 사우나에서 이바노바 관련 추행이 있었나요?)

[사례 9]

P	쿠르바노프 씨에게 2021년 8월 15일 300만 원을 빌려주신 사실 있지요?
K2	А вы ему давали в 2021 году 15-ого августа 3 мил 1 тыщ. вон вы давали ему, да? (당신은 2021년 8월 15일에 그에게 3백만 천 원을 주었나요, 네?)

[사례 8]과 [사례 9]는 각각 날짜 및 숫자를 다른 숫자로 대체하여 통역한 경우이다. [사례 8]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이라는 날짜가 2021년 10월 21일로 대체되어 통역되었고, [사례 9]에서는 3백만 원이 3백만 천원으로 통역되었다. 어휘 누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날짜, 금액 등은 정확하게 노트되지 않는다면 기억만으로는 제대로 통역하기 어렵다.

(5) 어휘추가

원문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인데, 경찰통역 분석 결과 추가로 인한 오류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 [사례 10]

P	또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3	Если... если Вы не будете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это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о против Вас <u>в суде</u> . (만약... 만약에 당신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 10]의 경우는 피의자고지문을 통역하는 과정인데, 특정 질문에 진술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통역인이 임의로 ‘재판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원문에 없으나 통역인이 그럴 수 있을 법한 상황을 추측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에서 ‘술을 먹었다’를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었다’로 어절을 추가하는 경우였다. 피의자권리 고지의 사례에서는 ‘법원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한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성추행 사건의 경우 술이 아니라 수면제를 탄 술이라면 성추행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오역으로 인해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통역인의 윤리규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례이다.

## (6) 문장추가

오류 중에서 문장을 추가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는데, 일부의 경우 원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 [사례 11]

P	2021년 9월 14일 저녁 11시 30분 철산동 회사 숙소에서 이마노프 씨를 폭행한 사실 있으시죠?
R4	В 2021 году 13 сентября в Самсандоне в общежитии было нападение, <u>расскажите о нем подробнее</u> . (2021년 9월 13일 삼상동 숙소에서 폭행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보세요.)

문장을 추가한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의 질문을 통역하면서 발생했는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위의 사례에서는 경찰의 질문 중 사건 발생 시간과 폭행 대상이 누락되어 있고, 경찰의 질문인 원 발화에는 없으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일부 통역인들은 원문에 없으나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다’, ‘솔직하게 말해달라’ 등의 문장을 추가하여 기관의 조력자 역할을 하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역인이 피의자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자연스럽게 통역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확성과 더불어 경찰통역의 중요한 윤리 규범은 ‘중립성’인 만큼, 위와 같이 통역인이 경찰을 대신하여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어 경찰통역의 오류 양상을 고찰하고, 경찰통역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통역 오류 분석을 위해 사법통역 평가 기준과 일치하는 Barik의 오류유형을 연구 목적에 맞게 간소화하여 분석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발생 빈도수로 보자면 ‘누락’(212건, 50.7%)이 가장 많았고, ‘대체’(187건, 44.7%), ‘추가’(19건, 4.6%) 순이었다. 오류의 하위 범주로 보면 ‘어휘 대체’(37.8%), ‘어휘 누락’(32.5%), ‘문장 누락’(18.2%), ‘문장 대체’(6.9%), ‘어휘 추가’(2.4%), ‘문장 추가’(2.2%) 순으로 나타났다. 오류 하위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유형이고, 추가는 빈도수가 가장 적은 오류 유형이라는 점에서 동시통역, 의료통역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이미경, 2012; Flores et al., 2012)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피의자권리 고지의 경우 청취 및 표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어휘 혹

은 문장 단위로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법률, 의료용어 등 전문용어의 경우 어휘 대체가 빈번히 나타났는데, 자신이 이해한 핵심어에 기반하여 일반화해서 통역하는 경향이 있었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이나 지명 등의 경우 자신이 들은 대로 발음하여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숫자가 포함된 경우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른 낱자 혹은 금액으로 대체되어 통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둘째, 언어 방향성 별로 보면, 거의 모든 오류 유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러 방향에서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는 제도의 에이전트이면서 지식과 지위 면에서 피의자와 비대칭을 이루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이끌어가는 제도대화의 특징(박용익, 2006)에 기인한다. 이 외에도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질문에는 숫자, 고유명사, 전문용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정보의 밀도가 피해자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결국 언어 방향성별 발생 오류의 빈도 차이는 애초에 원문인 경찰 발화에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역인 개인별 오류발생 빈도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통역인의 오류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의료통역 전문 교육을 받은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 간의 오류발생 빈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결과(Flores et al., 2012)와 일치한다. 단순히 정량적으로 오류를 집계한 연구이므로, 오류 발생 건수가 전달력이 좋고 유창한 통역을 구분 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경찰통역을 포함한 지역사회통역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찰통역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통역 교육 설계에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노트테이킹 기법을 소개하고, 자기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통역 과정에서 청취와 표현의 단계를 이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노트테이킹 기술이다. 통역인들은 자기회상기술에서 노트테이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기학습만으로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기에 어

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노트테이킹 시스템과 스타일이 다르지만(Szabo, 2006), 통역 시 기억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메시지의 구조를 불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트테이킹(이창수, 2001, 99)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통역 교육시에 노트테이킹 기법에 대한 소개와 자기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통역인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도대화로서 경찰통역 담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찰대화는 정보와 지위의 비대칭으로,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경찰의 질문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 많고, 그 내용 또한 전문적이다. 피의자(피해자)의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 시에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피의자권리 고지문’과 수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법률 및 의료 용어를 숙지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통역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확성’과 ‘중립성’이라는 경찰통역 윤리 규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피의자권리 고지문에 ‘법정에서’라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경찰 발화인 원문에 없으나 ‘자세하게 말해달라’ 등의 말을 추가한다면 각각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경찰통역 윤리 규범에 위배된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통역인이 기관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용어 습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누락, 대체 등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표현, 관용어, 문화소 등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고,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대응어를 찾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인 통역인 오류 양상과 구체적인 통역 사례들은 경찰통역 교육 시 통역인의 윤리규범, 노트테이킹을 활용한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 제도대화로서의 경찰통역 담화의 특징 등을 소개할 때 유의한 사례가 될 것이

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역실습 교육은 2년에 걸쳐 총 12시간에 불과하다 (이지은, 2021, 220). 전문 통번역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면 부족한 수업시수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사회통역, 사법통역, 경찰통역, 통역 오류, 통역 교육

## [참고문헌]

- 경찰청 (2020). 수사통역 통합 교재. 경기도: 은화사.
- 김원숙 (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 페이퍼, 2012(4), 1-32.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박용익 (2006).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 텍스트언어학, 21, 207-237.
- 법무부 (2004). 출입국통계. 출처: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 이미경 (2012).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오류와 전략적 대응-한영동시통역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27-151.
- 이유진 (2015). 한국 형사재판 법정통역사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어 통역 담화분석 및 통역사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 전공.
- 이유진 (2016).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11-136.
- 이유진 (2021). 법정 교호신문 통역 사례 연구-중국어 사법통역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2), 29-53.
- 이지은 (2012a).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이지은 (2012b).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236.
- 이지은 (2017a).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이지은 (2017b).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통해 본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 번역학연구, 18(2), 127-150.
- 이지은 (2021). 경찰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관한 소고: 통역 교수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2(2), 211-241.
-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9). 평가 척도를 이용한 사법통역 평가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2), 81-109.
- 이지은, 장원경 (2015). 사법통역인의 순차통역 평가 사례 연구. 언어학연구, 20(1), 99-118.
- 이지은, 장원경 (2016).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3), 251-280.
- 이지은, 홍서연 (2020). 피의자신문 통역 담화분석을 통해 본 비전문 통역인의 자기발화수

- 정 양상: 러시아어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237-267.
- 이창수 (2001). Note-taking을 도착어로 할 때의 교육적 장점 연구. 통번역학연구, 5, 97-111.
- 이태형 (2001). 영한 동시통역의 생략 오류 연구. 번역학연구, 2(1), 7-27.
- 정철자, 김진아, 김한식, 박현일, 김지은, 유한내, 박세리, 홍승빈 (2019). 법정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정희란, 한혜민, 송은정 (2023). 커뮤니티 통역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7(3), 119-137.
- 한현희 (2016).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7(2), 251-286.
- 홍서연 (2019a). 경찰통역 담화 연구: 한리 대면 및 전화통역 담화의 대화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 전공.
- 홍서연 (2019b).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에 관한 연구: 'bbb 코리아' 전화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5), 277-303.
- Anazawa, R., Ishikawa, H., & Kiuchi, T. (2012). The accuracy of medical interpretations: A pilot study of errors in Japanese-English interpreters during a simulated medical scenario. *Translation & Interpre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4(1), 1-20.
- Barik, H. C. (1971). A description of various types of omissions, additions and errors of translation encountered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16(4), 199-210.
- Flores, G., Laws, M. B., Mayo, S. J., Zuckerman, B., Abreu, M., Medina, L., & Hardt, E. J. (2003). Errors in medical interpretation and their potential clinical consequences in pediatric encounters. *Pediatrics*, 111(1), 6-14.
- Flores, G., Abreu, M., Barone, C. P., Bachur, R., & Lin, H. (2012). Errors of medical interpretation and their potential clinical consequences: a comparison of professional versus ad hoc versus no interpreter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60(5), 545-553.
- Ivanova, A. (2000). The use of retrospection in research on simultaneous interpreting.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37, 27-52.
- Lee, J. & Hong, S. (2021). Help me to help you to help me: a conversation analytic study of other-initiated repairs in a case of Korean - Russian interpreter-mediated investigative interview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29(4), 522-538.

- Szabó, C. (2006).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Practice in Interpreting*, 8(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어 경찰통역의 오류 양상을 고찰하고, 경찰통역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통역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락’이 가장 많았고, ‘대체’, ‘추가’ 순이었다. 오류 유형의 하위 범주로 보자면, ‘어휘 대체’, ‘어휘 누락’, ‘문장 누락’, ‘문장 대체’, ‘어휘 추가’, ‘문장 추가’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 방향성 별로 보면, 한-러 방향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는 경찰의 질문에 법률용어, 의료용어, 고유명사, 숫자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인 개인별로는 오류 발생 건수의 차이가 컸고, 전문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통역인의 오류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경찰통역 오류 양상 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한 경찰통역 교육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통역 교육에서 노트테이킹 전략을 소개하고, 자기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트테이킹은 청취와 표현 단계를 연결해 주는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통역 담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률용어가 포함된 피의자고지문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경찰통역의 중요한 윤리규범인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인 통역인 오류 양상과 구체적인 통역 사례들은 경찰통역 교육 시 노트테이킹을 활용한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 제도대화로서의 경찰통역 담화의 특징 소개, 윤리규범을 강조하기 위한 유익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 Study on Errors in Korean–Russian Police Interpretation

Hong, Seoyeon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rrors in Russian police interpretation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e interpreta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olice interpretation errors, “omission”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substitution” and “addition”. In terms of the subcategories of error types, they were “vocabulary substitution”, “vocabulary omission”, “sentence omission”, “vocabulary addition”, and “sentence addition”. In terms of linguistic orientation, almost all types of errors were more frequent in the Korean-Russian direction. This is because the police's questions contain a variety of information, including legal and medical terminology, names, and numbers.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errors among individual interpreters, and the frequency of errors among interpreters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e implications of police interpretation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e interpretation erro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ote-taking strategies in police interpretation training and provide guidelines for self-learning. This is because note taking can be a very efficient tool to improve the accuracy of police interpretation. Seco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interpreters' discourses, interpreter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suspect's notice that contains legal terms and the expressions that are frequently used by the police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ird,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maintaining the accuracy and neutrality of interpretation, which is an important code of ethics for police interpretation.

If the errors and specific cases of interpretation that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used in the training of police interpreters,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sufficient class tim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essons.

**【Keywords】** Community Interpreting, Judicial Interpretation, Police Interpreting,  
Interpreting Errors, Interpretation Education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1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8월 04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7일

**【저자연락처】** oliya@hanmail.net